

건강칼럼

심장통증, 경식도 초음파 검사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거나 쥐어짜는 것 같은 빠른 통증을 느낄 때가 있다. 이때 심장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볼 수 있는데 심장의 기형 등을 살펴거나 심장이상 시 질환을 밝혀내기 위해 경식도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심 대 근

굿모닝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경식도 초음파 검사란

일반적인 심장초음파 검사는 가슴을 통해 초음파가 전달되므로 초음파가 통과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세한 구조물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경식도 초음파 검사는 심장이 바로 뒤에 있는 식도에서 심장으로 초음파를 보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심장초음파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경식도 초음파 검사용 관은 직경 1cm에 길이가 1m 정도 되는 부드러운 관이며 관의 끝은 초음파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관은 입을 통해 식도로 삽입되고 식도에서 심장의 상태를 영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위내시경처럼 식도 안에 초음파탐지 기구를 넣어 검사하기 때문에 내시경 심장 초음파 검사로 불리기도 한다.

경식도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 일 반적인 심장초음파 검사를 먼저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임상적 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서 시행하게 된다. ▲갑상선 심내막염이 의심될 때 ▲인공 판막기능 부전 시 ▲수술이 필요한 심장판막의 폐쇄부전 또는 협착 정도를 평가할 때 ▲대동맥 박리증 ▲승모판막 풍선확장술을 시행하기 전 심장 내 혈전 유무를 확인할 때 ▲심인성 뇌졸중의 원인을 찾을 때 시행한다.

◇준비와 과정

검사 전 동의서를 작성하고, 검사 전 6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 전날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고 이후부터 금식하면 된다. 경식도 초음파와 관을 식도로 삽입하기 때문에 구토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로 인한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생리식염수 수액을 정맥 주사로 맞게 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중증의 판막 폐쇄부전, 심실중격결손증, 심내막염을 앓거나 과거에 앓은 적이 있는 환자 등 개입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검사 전에 먹는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다.

검사 시에는 관이 삽입될 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제를 삼킨다. 이 작은 구역질 반사를 억제시키며 심장 초음파관 통과 시 초래되는 불편감을 줄여 준다. 검사대 위에 왼쪽으로 누운 후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한다. 심장 초음파관이 삽입될 때 혀와 목에 힘을 빼고 코와 배로 천천히 숨을

쉬면서 기침을 참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른 침을 2~3회 삼키면 쉽게 삽입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마취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사레가 걸리거나 폐렴의 원인이 되므로 식사와 물은 구역질반사가 돌아오는 약 1시간 후 섭취가능하다. 목에 이물감이나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자극을 주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가글링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검사 후 피를 토하거나, 피가 섞인 변, 검은색 변을 보는 경우,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경우, 삼키기 어렵거나, 숨 쉬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검사이나 합병증으로는 드물게 흡인성 폐렴, 출혈, 식도전공, 호흡곤란, 심부정맥, 심근경색, 과다 진정작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식도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장내의 혈액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심장질환의 평가에 도움을 준다.

사설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힘내야 한다

지금은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이같은 말은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다. 그래도 지금은 격려의 성격이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지 못하고 패상을 당했는데 가슴 아픈 일이다. 홀대라도 이런 홀대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수도권에서는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흔들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전북의 발전 가능성을 뚫개려고 덤벼더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권토중래의 정신으로 후일을 기약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당부하거나와 전북도는 실력부활을 위해 내부적으로 힘을 길러야 한다.그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전북도는 저번에 화이부동의 정신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풀이겨 생각해 봐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바로 그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분노에 고무되어야 한다. 다들 복도하는데도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내일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쳐진 채로 있다. 그렇게 해서 전북도는 제 몫을 행하는 역적스러움을 보여야겠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를 상대로 전북의 몫을 온전히 챙겨야 한다.

전북도 스스로 제 몫 찾기를 강조해 말했었거니와 다른 권역시도의 그것보다 역적스러워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도민들은 지역 발전을 열망하고 있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더러 선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전북도는 지역발전 열망의 열기를 계속 고조시켜야 한다. 그리고 더욱 뜨겁게 증폭시켜야 한다.도내 중요 현안들이 터닥거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힘을 길러서 밀어부쳐야겠다.

그리고 오늘날 날이 아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거듭 강조하거나와 전북도는 힘을 내 더욱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겠다.

청년층 불잡아들 일자리 대책 절실

청년층을 불잡아들 일자리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는 올해 1/4분기 일자리 마련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라고 발표했지만 공감할 수가 없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도내 젊은이의 대다수가 전북 지역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인데 말이다. 청년들 대다수는 기회가 주어지면 전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잡은 친구들을 도내의 미취업 젊은이들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해야 한다.괜찮은 일자리 늘리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이라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그 약발을 기대할 수가 없다. 미취업을 전국 1위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전북도가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청년일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먼저 출신수행하는 자세로 지역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현재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서 미지근하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달구어야 한다.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하더라도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밀바다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겠다.

기간제 일자리에 매달려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겠다. 그들은 인생 설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

여러 번 고용 쇼크를 언급했거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진정성이 관건이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하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

독자제언

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사립이다. 혹자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원인이 '제도의 불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제도적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서 신호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무법자들 앞에서 수많은 법규, 처벌 조항들은 무용지물이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좋은 자리 보내달라고', '형량을 줄여 달라고', '단속하지 말아 달라고'라는 생각으로 뇌물 주고 촌지 주어 부패하게 만들어 버린 끊임 없는 비리는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8년 1월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되었다.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해 농가를 배려하여 화환, 조화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물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그 밖의 선물은 5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소신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강인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호 원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즈에 베틀 남성, 100만 불 이상 당첨



마스터스 골프에서 타이거 우즈의 우승에 베틀했던 제임스 아두치가 15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신의 티켓을 바라보고 있다. 아두치는 우즈의 우승으로 당첨금으로 100만 불(한화 약 11억 원) 이상을 받게 됐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